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7월 1일(화) 제 3123호

전북도, 도내 방산기업 협의체 출범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 도는 지난달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도내 산·학·연·관 협력 방산기업 활성화 민간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도내 68개 기업과 협력 '첫발' 지역 방산 경쟁력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가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30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내 방산기업 간의 공동 성장과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방위산업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벤처기업 68개사가 참여해 구성됐다. 향후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 사업 추진 등 연대 협력을 통해 전북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최석구 전북국방벤처센터장 등 주요 인사와 방위사업청, 협약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협의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협의회 회장으로는 ㈜한실어패럴 박연옥 대표가 선임됐으며, ㈜바로텍시너지 구칠효 대표, 이스켐㈜ 이범철 대표, ㈜옥타홀딩스 김동현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다.

전북자치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제휴 및 공동 사업을 확대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북을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제 발굴, 기술 지원, 시험·인증, 사업화, 홍보 등 전 주기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알루포스, ㈜인투스카이, ㈜보다, ㈜제이앤씨테크, 아이센서스㈜, ㈜데움아이티 등 6개 기업과 신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총 68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 중이다.

박연옥 협의회장은 "방산기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전북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전주시는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기업들과 함께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의회 출범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 있는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공공형 수직농장 시대 개막 기후위기 걱정 없는 첨단 영농 실현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장수 계남면 전국 최초 준공 도·군·CJ 협업 미래농업 기반

계절의 벽을 넘어선 첨단 농업이 장수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남면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의 준공식을 열고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도·군의원, 사업 참여기관인 CJ제일제당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 혁신 현장을 함께 확인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농업 시설이다. 특히 국내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북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되며 시작됐다. 2024년 6월에는 전북자치도-CJ제일제당-장수군 간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 모델을 완성시켰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3개의 재배실과 작업장, 저온저장고, 회의실 등을 포함 총 2,01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난 5월에는 청년농 6명이 입주하여 최근 미니로메인과 버터헤드 등 작물 수확을 시작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은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혁신 모델"이라며, "도는 앞으로 농업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K-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원예단지 등 단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농 700명 신규 육성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농업 정착 유도와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으로, 전북형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스케일업 '벤처투자 라운드' 시동

전북 유망 스타트업 9개사 수도권 VC 초청 실전 IR 피칭 전북 창업기업 민간투자 연계

전북자치도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3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의 첫 행사로 '초기 창업 생태계 구축'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투자사, TIPS 운영사, 정책출자기관, 스타트업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IR 피칭 외에도 투자사 밋업, 전북 정책 소개, 후속 라운드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플랫폼은 민선8기에서 확대 조성 중인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실질적인 운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벤처기업이 수도권 중심의 민간 투자 생태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전북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 사업의 첫 무대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도권 벤처캐피털(VC)과 직접 만나 실전 IR(기업설명회)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 기업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사 및 유관기관이 직접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피칭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높은 민간 수요 기반 투자 연계 체계를 도입했다.

IR 발표에는 ▲전기화물차 관제솔루션 '꾼' ▲폐태양광 재활용장치 '다이나믹인더스트리' ▲스마트팜 시제품 제작 '더블유엠어시' ▲급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엘티' ▲열화상 이미지센서 기업 '보다' 등 9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IR 발표에 이어 투자사 밋업이 진행됐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부 기업에 대해 투자사로부터 '투자검토의향서'를 수령하고 전북자치도와 함께 후속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6회의 라운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 컨소시엄 라운드 3회(초기 창업생태계 구축, 도내기업 밸류업, 도외 유망기업 유치) ▲유관기관 연계 라운드 2회(KDB산업은행 등 협업)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1회 등 전략성과 연속성을 갖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에서 발굴된 유망기업이 민간투자자에게 직접 인정받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에서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Visit Imsil year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전북자치도,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기준 완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8월 29일까지 접수

전북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피해 농지의 빠른 복구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도민 신뢰 회복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3개월 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비위 및 소극행정 집중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획됐다.

홍보기간 동안 도 감사위원회는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시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익명제보시스템과 제보 상담 번호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지역 여건에 맞춘 포스터 부착, 홍보지 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협업 등으로 자체 홍보를 병행한다.

도민 누구나 전북도의 익명제보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063-280-2394, 2172)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직무 권한 남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물품 사적 사용, 소극행정 등 광범위한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익명제보시스템 이용 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체적 위협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제보된 내용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 중인 상황에서,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한 체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정례 개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도 병행 중이다.

또한 실국원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력(淸力)업(UP) 책임관제'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사업, 민원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청렴 이행력 점검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월 2일까지 3개월 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비위 및 소극행정 집중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자치도>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도민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홍보기간을 통해 도민과 공직사회 간의 청렴 공감대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베트남 카인호아성, 협력 강화

카인호아성 초청 나트랑 이주민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윤)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 한국관광콘텐츠학회(회장 류인평)는 베트남 카인호아성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달 27일 베트남 나트랑을 방문하고, 현지 주요 기관과의 문화·관광 교류 및 협력 일정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면담에서 레 흐우 호앙 상임부위원장은 전북의 문화·관광·예술·산업 역량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재단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전북 3개 기관 및 단체는 전북자치도의 역사와 문화, 미식, 관광 기업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 이주민 연계 문화예술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카인호아성 측은 이에 한국어·베트남 관광 통역 안내원 인재 양성,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 포럼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최영규 재단 사무처장은 "향후 공동사업 추진과 민간·공공·학계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서포터즈 활동 본격화

(재)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산하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30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2025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 서포터즈'는 도내 청년들로 구성된 홍보단으로, 올해는 총 10개 팀이 선발돼 4개월 동안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과 입주기업, 전북 콘텐츠 산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규 원장은 "서포터즈는 지역 콘텐츠 산업과 청년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며,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펼쳐질 이번 홍보 활동이 전북 콘텐츠 생태계에 생동감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산림박물관, 여름 특별기획전

자연 속 문화 향유 예술·대중성 동시 확보

전북자치도 산림박물관은 오늘부터 여름 특별기획전 '바람길에서 만나는 삶의 쉼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속에서 관람객들에게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문화행사다.

전시는 조각 및 입체 장르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재료와 조형 언어를 통해 산림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선보인다. 박물관 측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자연 속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제공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밝혔다.

참여 작가는 박창은, 최무용, 한정무 등 세 명이다.

박창은 작가는 기하학적 도형(원·사각형·삼각형)을 활용해 인간의 이성, 감성, 욕구를 은유하고 최무용 작가는 자연석을 연상케 하는 조각을 통해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의 철학을 구현한다. 한정무 작가는 상반된 자연 요소 간의 조화를 통해 긴장과 균형의 미학을 보여준다.

전시는 산림박물관의 상설전시관과 영상관을 포함한 공간 전체를 활용해 구성되며, 관람객들은 전시 콘텐츠와 함께 자연환경이 주는 치유의 분위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계절별 주제를 반영한 박물관 기획전의 일환으로, 산림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관람객과의 감성적 소통을 지향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委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 발굴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윤)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 한국관광콘텐츠학회(회장 류인평)는 베트남 카인호아성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달 27일 베트남 나트랑을 방문하고, 현지 주요 기관과의 문화·관광 교류 및 협력 일정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면담에서 레 흐우 호앙 상임부위원장은 전북의 문화·관광·예술·산업 역량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재단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전북 3개 기관 및 단체는 전북자치도의 역사와 문화, 미식, 관광 기업 등을 소개하고, 베트남 이주민 연계 문화예술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카인호아성 측은 이에 한국어·베트남 관광 통역 안내원 인재 양성,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 포럼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최영규 재단 사무처장은 "향후 공동사업 추진과 더불어 민간·공공·학계가 연계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예산 낭비 감시단 4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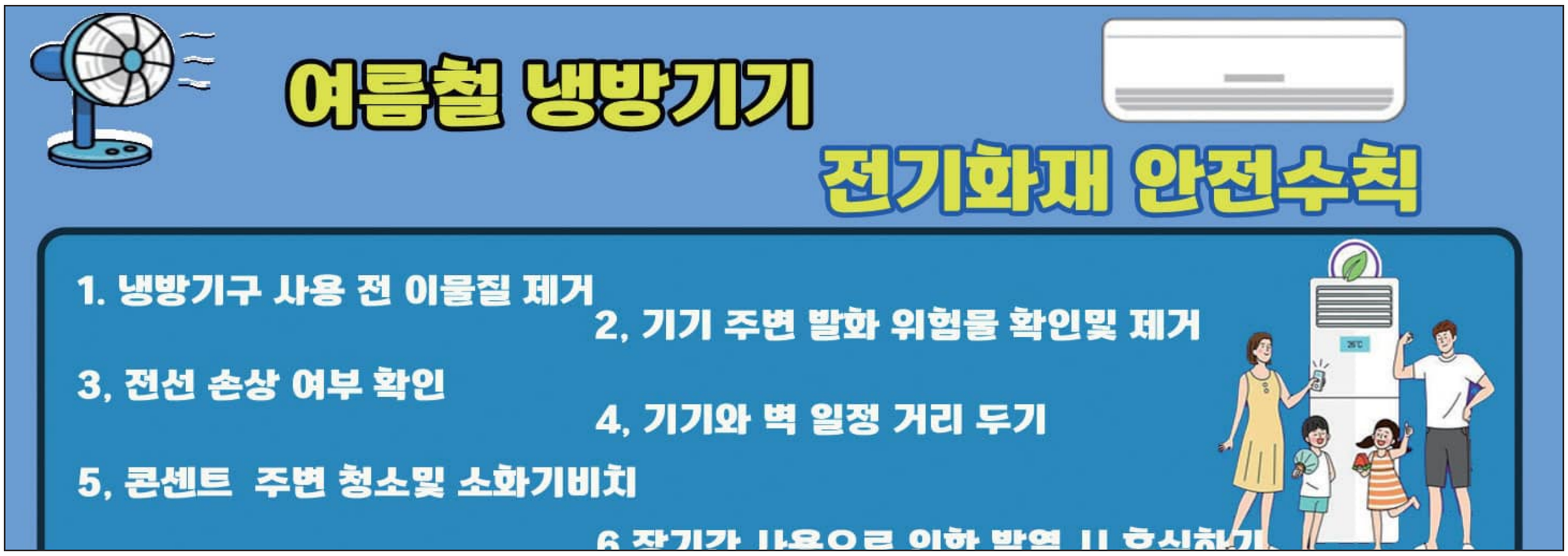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제4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단은 지난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예산낭비 신고 △민원 검토 △현장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도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의견제시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행사에서는, 감시단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실제 사례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돼 실제 신고·조사·제안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시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최종 합의 도출

완주군민協-전주시민協 통합 인센티브 완주 투자 등 105개 상생발전방안 건의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에 따른 완주·전주 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완주·전주 주민들은 상생발전방안에 따른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들을 도모하며 완주·전주 통합에 기대를 모았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공동대표 나유인·성도경, 이하 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시민협의회)은 완주군 삼례읍 소재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 자리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서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숙고의 시간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이날 합의한 총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수용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 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액 투자(지역개발사업 분야)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12년 이상 유지하고 증액(주민복지 향상 분야) △완주군 의원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지방의회 운영 분야) 등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또 △완주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유치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등) 유치 △만경강(하리일대) 드림랜드(테마파크) 건립 △전주 송천동~삼봉광장(4㎞) 8차선 확장 △전주 장동 유통물류센터 용진읍 확장 이전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 BRT 노선연장 등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

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유인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양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모여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도 "숙고를 거친 만큼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마음을 상생발전방안에 더 깊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통합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최종 합의라고 표현했지만, 오늘의 합의를 시작으로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바람과 고민을 모두 녹여낸 합의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시·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4개 프로젝트 그룹 출범

XR 공유 공간 사업 등 추진 산·학·관 협력 전환점 기대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출범식을 지난달 30일 신성장융복합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했다.

시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국책사업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4개의 프로젝트 그룹이 공식 출범하며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협업 프로젝트는 △첨단 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XR 군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 축구팬 기반 가상현실 관광콘텐츠 개발 △카멜레온 'XR기술을 이용한 공유공간 사업' △K-콘텐츠의 미래 XR·홀로그램 기반 실감형 라이브 콘텐츠 제작 및 실증 환경 기획 등이다.

4개 협업 프로젝트에는 총 15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출범과 함께 선정된 주관기업들 프로젝트 소개와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가상융합기술과 AI 융합 사례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국내 가상융합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가 3인이 발표에 나서며 △김동규 칼리버스 대표이사의 'AI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메타버스의 미래' △박창준 ㈜엔피 이사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XR 웰니스 솔루션, 무아' △김종열 ㈜디케 김종열 대표이사의 '뉴테크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형 콘텐츠의 설계와 구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인근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과 연계한 XR·메타버스 산업 발전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기도 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문화도시 추진 협치 기반 강화

미래문화 콘텐츠 확장 시민 참여 확대 의견 모아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문화도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2025년 제1차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거버넌스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간·공공 분야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추진 위원회는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주요 현안 검토, 실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연계된 세부 실행 계획 △앵커사업 중심의 전략적 추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진 위원들은 이어 문화도시 사업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실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주가 지향하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역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미래문화 콘텐츠를 확장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들은 향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시민과 예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와 창의성을 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소방본부, 구급차 교체·신규 배치

34억3천여만원 투입 응급환자 안전이송 책임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이 응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구급차 보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4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 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음압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1차 보강은 지난 27일에 실시됐으며, 노후 특수구급차 13대를 교체하고 중형음압구급차 1대를 새롭게 배치했다. 나머지 구급차 2차 보강은 제조사별 납품 일정에 따라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구급차 보강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도착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위급한 순간 도민이 더욱 신속하고 믿음직한 119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기상지청-농어촌공사, 재해 예방 협약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기상재해 예방과 물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상재해 대응 및 안전 취약 저수지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 공유와 지원 △농어촌 지역 기상·수문 관측자료 공유 및 관측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정보와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해 전북 지역의 연평균기온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군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는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상 변화에 민감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완산소방, '119HERO' 3명 선발

김영현·장동준·최용호 대원 최종 선정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025년 상반기 '119HERO 구급대'로 효자119안전센터 소속 김영현, 장동준, 최용호 대원 3명을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119HERO 구급대' 선정에서 심정지 환자 현장 대응 분야에서 탁월한 구조·처치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HERO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평가해 반기별로 우수 대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구급대원 전문성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식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심정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 △영상의료지도를 통해 전문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실시 △이송 중 병원과 긴밀히 연계 △응급처치 전 과정을 완수하는 등 매 순간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탁월한 대응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들의 체계적인 대응은 생사의 경계에 있던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팀워크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들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되살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켜낸 현장의 진짜 영웅들"이라며 "119HERO 구급대가 정착된다면 대원들의 사명감은 물론, 시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정된 3명의 '119HERO 구급대'에게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 부상(副賞)등이 수여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점검

김 지사 "도민 안전 직결 즉각 대응 태세 지속 점검" 강조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 35사단 김범수실에서 전북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석 35사단장,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 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35사단 부대 소개 영상 상영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발표 △취약지역 해제 심의 △해안경계작전부대 장병과의 화상통화 △군·경·소방 장비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전북 해안 격오지에서 지역 방위를 수행 중인 해안감시기동대 대대장들과의 실시간 화상통화가 마련돼, 현장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 통합방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민·관·군·경·소방이 빈틈없이 공조하고, 위기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태세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상의, 부가가치세법 실무 능력 향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사업장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들으면 더욱 유용한 부가가치세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총무·회계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교육에서는 세무그룹 에이블 안병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부가가치(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미, 사업자, 과세대상 거래, 영세와 면세, 세금계산서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사례 등의 설명을 실무 담당자가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전북도청 1층에 '마을세무사 상담소' 개소

매월 첫째·셋째 木 무료 운영
현직 세무사 재능기부 상담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 1층 마을세무사 상담소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담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로, 현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지방세·국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42)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 단위에서도 총 7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실력파 中企' 발굴 '천억기업' 만든다

외부 투자 없이 성장 '유니콘'
'수익성장형 트랙' 참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투자 유치를 하지 않고도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벤처기업을 위한 '아기유니콘 지원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이하, 수익성장형 트랙) 참여기업을 7월 1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수익성장형 트랙'은 내실있는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 검증된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지원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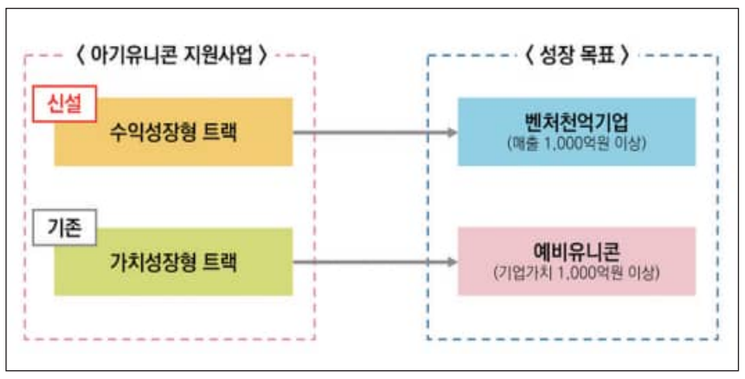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4년 이상 10년이하) 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범위의 벤처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야별 전문가(유니콘서포터즈)를 매칭해 맞춤형 글로벌 성장전략과 수출·마케팅 등의 후속지원도 패키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수익성장형 트랙'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8월중 최종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 및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아기유니콘 지원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의 참여 기업을 오늘부터 모집한다. <사진=전북중기청>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본격적인 투자 유치 실적이 없지만,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을 통해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간척지서 산업용 고구마 재배 시작

염 농도 0.4% 이하 재배 가능
수입곡과 경쟁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은 새만금간척지에서 산업용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관개수 염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재배가 가능한 고구마 품종을 선발했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실험 결과, 관개수 염 농도가 0.4% 이하일 때 고구마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삽식 후 30일 이내 초기 생육은 다소 지연됐지만, 이후에는 회복돼 정상적으로 생장했다.

덩이뿌리(괴근) 수확용으로는 '호풍미', '소담미', '단자미', 지상부(잎·줄기 포함) 수확용은 '통채루', '소담미' 수량성이 높았다.

덩이뿌리 생체수량은 '호풍미'가 헥타르(ha)당 약 51톤으로 가장 많았고, '소담미'는 39톤, '단자미'는 28톤이었다.

지상부 말린 수량은 '통채루'가 헥타르당 약 7톤으로 가장 많았고, '소담미' 4.1톤, '호풍미' 2.8톤 순이었다. 지상부의 루테인, 폴리페놀산 등 기능성 물질 함량도 일반 노지 재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관개수 염 농도가 높아질수록 고구마 식물체의 나트륨(나트륨이온(Na+)) 함량도 증가했다.

특히 지상부보다 덩이뿌리에서 나트륨이 더 많이 축적됐고, 고구마 짠맛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특성으로 간척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가 식용보다는 산업용에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염 농도 변화는 기능성 성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구마 지상부의 루테인 함량은 관개수 염 농도 0.2%, 폴리페놀산 0.4%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짠맛을 유발하는 염분이 오히려 고구마 식물체 내 기능성 물질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간척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고구마 품종을 선발했다. 사진은 새만금간척지에서 재배 중인 고구마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고종철 센터장은 "새만금간척지는 밭작물 재배지로 조성돼 다른 간척지에 비해 염 농도가 낮고, 대규모 농경지가 형성돼 있다"며 "향후 산업용 고구마 원료곡을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면, 수입 원료곡과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국민연금 저소득 보험료 지원 30만 명 돌파

3년간 1,121억 원 지원 집행
지원 종료 후 91% 계속 납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개별안내 강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제도 초년도인 2022년 3만 8천 명에 불과했던 연간 지원 인원이 2024년에는 20만 4천 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또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대구 거주 김모 씨(61세, 남)는 공단으로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지원을 신청했다.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은 김 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는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은행 전북, 종합기획직원 채용설명회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경욱)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의 한국은행 입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7월 7일 오후 3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2층 강당(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이름, 연락처를 행사 전 영업일인 4일까지 jeonbuk@bok.or.kr로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는 2023년 도입되어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다.

이날 본부 채용담당자로부터 직접 한국은행 역할, 전형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전문 부문 채용 등 지방인재들에게 유익한 채용 정보가 중점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제4회 전기안전국민공모전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제4회 전기안전국민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 '안전등급지정'과
'어린이 전기안전탐험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주관 제4회 전기안전 국민공모전에서 △전기시설물별 안전등급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어린이 전기안전탐험대 캠페인이 각각 대상(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제4회 전기안전국민공모전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정책과 제도개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해 25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선심사를 거쳐 부문별 4편씩 총 8편이 본선에 올랐다.

PT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본선에서는 현장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 부문에서는 '전기시설물별 안전등급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부문에서는 '어린이 전기안전 탐험대 캠페인 추진'이 각각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황호준 부사장은 "전기안전 정책이 과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각과 제안이 중심"이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LG전자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협력

전기설비 안전 구축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달 25일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고 △모듈러 주택 전기설비 안전기준의 공동개발 △전기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LG전자의 차세대 모듈러 주택 플랫폼인 '스마트코티지'에 전기안전공사의 인증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기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래 주거 트렌드에 걸맞는 안전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주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신협, 대학(원)생 '어부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총 상금 1400만 원 규모 선정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을 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주제로 '신협 어부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집단지성을 통해 신협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국내외 대학(원생)과 휴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에 맞춰 △지속 성장을 위한 신사업 진출 방안 △AI·핀테크 기반의 신사업 모델 또는 신협 플랫폼 활성화 전략 △청년 조합원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 신상품 아이디어 △금융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신협의 역할과 대응 △기타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및 신사업 모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응모원고를 작성하면 된다.

시상으로는 총 1400만 원 규모로 △대상 1팀(500만 원) △최우수상 2팀(각 300만 원) △우수상 3팀(각 100만 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서거석 정책 기조 변함 없어"

유정기 부교육감 "문제 없이 수행할 것"

서거석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이 "서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과제와 전북 교육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유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합심하면 교육감의 공백 없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기조에는 큰 변화 없이 끝까지 유지하겠다"며 "다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를 비롯한 국장들과 부서장, 교육장, 기관장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교육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전북교육청>

이어 "다음 지방 선거까지 남은 1년간 특정한 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단 학생의 실력을 키우는 정책과 교권보호 정책은 교육 주체들의 지지를 받는 큰 축이라고 생각해 더욱 매진할 생각"이라며 "현재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부재로 생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질 우려에 대해 "첫 긴급 전략 회의에서 각 기관, 부서장들에게 주문했던 것이 '솔선수범'이었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을 알고 있기에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교육공동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조직화된 분들이기에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와는 달리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의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력과 교권신장 등 큰 틀에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이 돼 당혹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교육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동체들이 학생들을 위해 합심한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상시 진학상담 체계 구축

전주 진로·진학센터 개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계적인 입시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주 진로·진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주 진로·진학센터는 완산구 쑥고개로 비전타워 3층에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진로·진학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진로·진학센터는 전주를 비롯해 익산센터(익산), 군산센터(군산), 정읍센터(정읍·부안·고창), 남원센터(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센터(완주·진안·무주) 등 6개가 운영된다.

진로·진학센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센터에서는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과 진학지도 전문 인력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야간 및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 교원 대상 진학지도 연수, 학부모 설명회, 학생 맞춤형 컨설팅 등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전주센터 개소식으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기반 24시간 대입 상담체계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진로·진학센터가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북형 진학지원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1천773억 수익 감소 비용↑…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좋은정치시민넷, 24년 결산 발표

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세입, 세출, 수익, 비용, 부채 현황 등을 전년과 비교 분석했다.

2024회계연도 전북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4조8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세출 결산액은 4조6천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그러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천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7% 감소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천766억원으로 15.83%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9.44% 감소한 553억원, 사고이월액이 13.40% 감소한 52억원이다. 반면, 계속비이월액은 1천162억원으로 22.87% 증가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9%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69%나 감소했다.

재원별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4조22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3.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자체수입은 481억원(1.00%), 기타세입은 2천926억원(6.06%), 내부거래는 4천687억원(9.7%)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천17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천518억원을 전입받은 것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교육청 결산 결과를 보면 국세 감세와 경기침체로 지방교육교부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부족 재원을 내부 기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 없이 기금의 빠른 소진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등 4개 대학생 144명, 독도서 나라사랑 되새기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를 비롯한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는 공동으로 '2025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단'을 구성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탐방했다.

이번 국토탐방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 36명씩 총 14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독도 입도와 역사 특강, 안용복기념관 견학, 태극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독도에 발을 디딘 학생들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독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매우 감격스러웠다"며 "우리 영토를 지켜낸 선조들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학생수련원, '치유숲 산책길 캠프' 참여 가족 신청

초 5~6학년·중학생 가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송영임)은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분소(신선길)와 함께 '치유숲 산책길' 특별캠프 참여 가족을 신청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운영되는 이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포함한 20가족(가족당 최대 4인,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 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학생수련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참여 대상을 선발하며, 최근 2년 내 참여 가족은 제외된다. 참가 확정자에게는 오는 7월 9일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자연 속에서 숲 체험, 신선길 탐방, 안전교육, 명상요가, 가족 한마당, 들꽃 인문학, 천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IB 후보학교 승인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민환성)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관심학교로 등록된 지 불과 9개월 만의 성과로, IB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전체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IB 후보학교는 IB 본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며, 향후 IB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학교이다.

전주부설초는 초등 IB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me)의 철학과 실행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교육과정 설계, 교사 전문성 개발, 학교 문화 조성 등 다방면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이다.

이번 IB 후보학교 승인은 단순한 제도적 전환을 넘어, 전주부설초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접수…1인당 35만 원 지원

군산시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보조금24(www.gov.kr)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교육지원과 특수학습계(성산면 강변로 459,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평생교육바우처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75명은 지역 농협에서 '채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카드를 이용해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수강 가능하며, 이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100세 어르신 대상 장수 축하 선물…상시 접수

정읍시가 지역 100세 이상 어르신 3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물품을 지원하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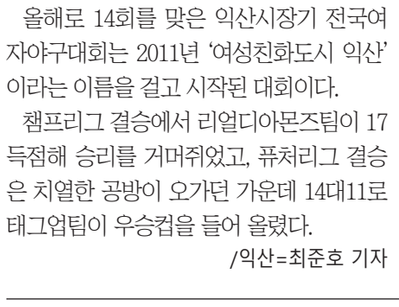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해당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함께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장수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가족·지역 공동체의 연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축하물품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장수축하물품은 1925년생 이상, 즉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한 어르신이 대상이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축하물품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온수매트 △이불세트 △의류(내의)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세트 △건강보조식품 등 10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르신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전국 33팀, 700여 명 참가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전국 여성 야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달구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익산시는 지난달 21일, 22일,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자야구연맹과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익산시야구국가대표훈련장과 보조구장, 리틀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당초 6월 14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일주일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3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익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된 대회이다.

챔프리그 결승에서 리얼디아몬즈팀이 17득점해 승리를 거머쥐었고, 퓨처리그 결승은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가운데 14대11로 태그업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100원 버스' 청소년까지 확대

전용 교통카드 이용 시 다음 달 교통비 환급

익산시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시는 1일부터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어린이(6~12세) 대상 '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익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어린이 대상 정책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부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 카드로 전환해야 하며, 미전환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교통카드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부받은 카드는 앱에 등록 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급은 월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행복더하기' 앱에 쿠폰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 쿠폰을 충전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 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이번 정책을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모집

최대 1,5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25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13명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가 대상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정읍시의 대표 청년 정책으로,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청년 창업가가 선발돼 사업장 구축, 재료비, 임차료 등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았다.

2기 참여자로 선발되면 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최대 3년간 연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4월에 진행한 1기 모집을 통해 7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 두 달간의 컨설팅 과정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사업 제외 업종이나 구체적인 요건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일본과 손잡고 백제왕도 정체성 국제 무대로

정 시장 일본 출장길 나서 일본 유관기관과 학술 교류

익산시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10주년을 맞아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세계유산 복원정비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익산 백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닷새간 일본 오사카와 나라, 교토를 방문해 '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한 한일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출장에는 시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학술 전문가가 동행해 일본 현지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아스카촌에 있는 아스카자료관과 비조사, 나라 평성궁 등 백제와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의 문화유산 복원 정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일본 문화유산 연구의 산실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모토나카 마코토 소장을 만나 세계유산의 복원정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일에는 일본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토 청련원을 방문해 히가시후시미 지코 문주와 환담을 나누고 '관세음응험기'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익산시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10주년을 맞아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 <사진=익산시>

방문단은 일본 4대박물관 중 하나인 '나라국립박물관'을 찾아 이노우에 요이치 관장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정 시장은 익산이 국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와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7세기 백제 불교문화가 꽃피운 왕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익산 백제문화가 일본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전시 협력과 학술 교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군산시편, 성황리 녹화

오는 9월 28일 전국 방영

군산시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가 지난달 28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3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예심을 거쳐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 무대에 오른 15팀은, 8세 어린이부터 9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은 물론, 타지나 해외에서 군산에 정착한 시민 등 각기 다른 사연과 열정을 지닌 참가자들로 구성돼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다.

특히, 최고령 참가자인 91세 어르신의 무대에는 관객들의 힘찬 박수가 쏟아지며 현장이 뭉클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국민 MC 남희석의 재치있는 진행과 함께 김성환, 임현정, 강혜연, 박군, 홍지윤 등 인기 가수들이 펼친 흥겨운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녹화된 '전국노래자랑 군산시편'은 오는 9월 28일 KBS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시민 감동 실천한 '친절공무원' 표창

박종찬·장주희 주무관

박종찬

장주희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온 정읍시가 민원 응대와 현장 대응에서 모범을 보인 직원 2명을 '2025년 상반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원은 신태인읍 박종찬 주무관과 도서관운영과 장주희 주무관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과 부서장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접수한 뒤, 전화 친절도 조사와 직원 설문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종찬 주무관은 복잡한 민원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냈으며, 현장 확인과 민원 응대에 있어 신속하고 정중한 자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주희 주무관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태도로 응대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친절 행정의 모범이 됐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근무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내부 친절 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달팽이공방', 발달장애 예술인 성장 이끌다

다양한 예술 활동·기념품 제작

군산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체계 '달팽이공방'이 예술을 매개로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소통을 이끌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달팽이공방'은 미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고, 전시·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방이 이름인 '달팽이'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는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 군산 명소를 담은 트라이탄 컵을 선보여 "장애 예술인의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완성도", "군산의 매력이 잘 담겨 있다"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대상 기념품 지원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술을 매개로 한 공감과 소통의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달팽이공방'은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5곳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중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달팽이공방을 통해 시민들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잇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축제,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포용적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치킨로드, 여름맞이 할인 혜택 제공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에서 맛과 혜택,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름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치킨로드 여름맞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앙동 치킨로드에 입점한 연품닭(1호점), BBQ문화점(2호점), 삼남극장(3호점) 등 총 3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점포별 할인과 함께 지역화폐 '다이로움' 결제 시 10% 추가 지급 혜택이 더해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연품닭은 식사 메뉴 10%, 주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BQ문화점에서는 전화 방문 포장 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4,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삼남극장은 전 메뉴 10% 할인을 제공하고, '공연이 있는 식당'이라는 특색을 살려 매주 금요일에는 식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여름 이벤트가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휴식이 되고,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에 총력"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함께"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선제 대응해 농작물 및 각종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6월 30일 오전 열린 영상간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마른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설물 손상,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서별로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등 현장 부서는 농작물, 과수, 축산 분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홀몸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D-100' 카운트다운

10월 8~12일 개최
야간경관·프로그램 등 준비 착착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D-10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며, 방문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올해 추석연휴와 이어지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지평선축제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령대별 맞춤형 공연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함께 가을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야간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7월중 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축제전 연휴기간에 벽골제 행사장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설체험 부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은 "남은 100일 동안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기대를 키워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축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제 D-100일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이번 이벤트는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된 콘텐츠에 축제 응원 댓글을 남기면, 당첨자에게는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본매장 개장

농가에 안정적 판로
소비자에 안전 먹거리 제공

부안군은 오늘 부안읍 봉덕리 29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안로컬푸드 본매장을 새롭게 개장했다.

이번 개장은 부안의 대표 먹거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군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조성한 시설로 부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납품해 정직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적정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가·정량·정품 원칙을 철저히 지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매장에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본매장은 기존 시설의 한계를 보완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지역 주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도 언제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장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할인 특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본매장 개장은 단순한 매장의 문을 여는 것을 넘어 부안형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자 지역 먹거리 자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직매장이 부안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여름 휴가철 관광택시 50% 할인

8월까지 군민 제외 누구나
SNS 이벤트 등 부가 혜택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여유롭게 부안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안 관광택시'는 관내 어디든 관광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예약형 교통서비스로, 자가 차량이 없는 여행객이나 효율적인 동선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여름철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택시 요금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다.

관광택시는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3시간 코스는 기존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시간 코스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시간 코스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5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부안군민을 제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광택시는 유연한 동선 설정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특히 이동이 부담스러운 여름철에도 관광객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관광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재해우려가구 전수조사

그린리모델링 집수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고창군이 관내 재해우려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창군청 주거복지팀 주관으로 노후 불량주택, 지붕 붕괴 위험, 배수 미흡 토사 유입 가능성 등 주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현장 점검하며 진행된다.

조사 결과, 재해 위험이 확인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집수리사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긴급집수리 등 기존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해 즉각적인 정비가 진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다"며 "위험요소가 확인된 가구에는 최대한 빠른 행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들어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임대보증금 융자, 장애인 친화형 주택개조사업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공음면·고창읍 출산가정 축하방문

축하꾸러미·아기옷 전달

고창군이 최근 공음면과 고창읍의 출산가정을 방문해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공음면에 거주하는 부부는 올해 공음면에서 첫 번째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며 마을에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를 전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동안 조용했던 면 지역에서 셋째 아이의 탄생은 지역사회에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뜻깊은 소식이었다.

같은 날 찾은 고창읍의 부부는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새내기 부모로, 그 감격과 감동이 더욱 남달랐다. 산모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직접 축하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보건소는 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꾸러미와 아기옷을 전달하고, 산모와 가족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임신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 시·군의장協, 새만금 국가정원 지정 촉구

제291차 월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1차 월례회가 6월 30일(월) 오전 11시,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주관했으며, 전북 12개 시·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성주 김제시장의 환영사,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의 인사말 및 기념품 전달로 개회식을 열었다. 이후 본회의와 함께 스마트팜 단지 견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장은 "정부가 더 이상 서해안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말고, 새만금 국가정원 지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장은 이어 "순천만(남해안), 태화강(동해안)은 이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반면, 서해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월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 시·군의회는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43명 신규 채용

부안군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최근 부안군 어울림 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용 행사로 고용노동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산학융합원 · 부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안군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54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주었다.

△㈜참프레 △변산소노에스테이트 △변산소노인터네셔널 △㈜풀무원 푸드앤컬쳐 △성모병원&효요양병원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업체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의 1:1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43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익혁 부안군수는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생활체육 참가자 수시 모집

며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과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참가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자체 대상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번 김제시 제2회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3,846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들에게 주말 체육 활동을 통해 스포츠 일상화 촉진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은 러닝크루와 그룹 트레이닝 2개 종목을 운영하기 위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참가 신청은 김제스포츠클럽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2개 공모사업이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4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31명 모집

고창군이 2025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모집한다.

대학생일자리사업은 군비 1억1100만원을 투입해, 연 2회(여름, 겨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6개 사업장에 31명을 배치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22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이다. 대학생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1회 이상 있는 자와 휴학생(군복무를 위한 휴학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참여 가능), 대학원생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창을 바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근무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그림책양육감정코칭 지도사 응시자 전원 합격 쾌거

고창군립도서관이 지난 4~6월 지역주민 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그림책양육감정코칭지도사' 자격증 강좌에서 수강생 전원 합격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26일 전했다.

강좌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강생들은 그림책의 이해부터 실제 적용에 이르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슬픔,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포착하고 공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은 향후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현장에서 그림책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과 아동 독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나윤옥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신항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학술대회' 열어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권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문제의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이익형량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이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계돼 기능적·지리적으로 김제시와 밀접하다"며, "대법원 판례 기준상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최환용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무역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항만의 운영 효율성과 배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은 김제시의 정당한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새만금신항은 김제시가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반드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인구 10만' 완주군, 市 승격 정조준

'전북 4대 도시' 도약 노려
승격 요건 완화 법 개정 대응
도시 강화 4대 전략 역점 추진

완주군이 인구 10만 회복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북 4대 도시 도약과 시(市) 승격을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완주군 인구는 지난 5월 27일 1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군은 10만 인구 달성을 넘어 올해 안에 인구 규모 전북 4대 도시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올해 안에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인구를 제외한 1인당 GRDP(전북 1위/2021년 기준), 수출액(전북 3위/2024년 기준), 산업단지 규모(전북 3위/2024년 기준), 지방세수(전북 4위/2024년 기준) 등 여러 지표에서 이미 도내 4위권에 진입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전북 4대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시 승격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칠곡군과 연대해 시 승격 요건을 현행 15만에서 10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

또한, 10만 완주시대에 발맞춰 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성장 가속화 △경제성장 고도화 △행복성장 지속화 △읍면성장 특성화 등 4대 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한다.

첫째, 도시성장 가속화를 위해 삼례·봉동·용진 권역 연담화를 통한 도시성장 중심축을 마련하고, 신규 택지개발과 삼봉2지구 조기 조성을 추진한다. 대광법과 연계해 광역 및 지역생활 교통망을 지속적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새정부의 정책사업인 미래모빌리티 AI산업, 방위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행복성장을 지속화해 전국 군단위 삶의 질 지수 1위 지자체의 명성을 확고히 한다.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을 조기 조성하고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도시 수준의 문화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읍면 성장 특화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농촌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SOC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1일 자로 인구정책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인구, 신성장산업, 관광, 축산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지역 미술작가 작품 공개 구입 첫 추진

공공 소장 지역작가 '뒷받침'
지역 예술 생태 조성 전환점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2025년 완주지역작가의 미술작품 공개구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완주군 최초로 지역 미술작가의 작품을 공개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소장 중심의 예술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술작품 소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9일 국내 전문가 7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이후 △6~7월 작품 공개 구입 공고 및 접수, △8월 중 작품 심사 및 구입 심의, △9~10월까지 실제 작품 구입 및 소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은 지역 작가의 작품을 공공이 직접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완주군내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의 문화사업 범주를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면허부터 취업까지'
지게차 수료생 채용 성과

완주군 로컬잡(JOB)센터가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으로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수료생에게는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톤 미만 지게차 건설기계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현장 면접의 날을 마련해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면접에는 ㈜가온셀, ㈜아이씨엠씨, ㈜다한산업, (유)다수, ㈜제이앤디 등 완주산단에 입주한 5개사가 참여했으며, 수료생 15명 중 5명의 채용이 확정됐다.

채용이 안 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지원교육은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생산제조업의 구인난을 우선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40명이 접수하는 등 지원자가 몰렸다. 이에 센터는 취업 의지가 높고 유사 경험이 있는 15명을 선발해 전원 면허 취득이라는 성과를 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북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운영

'인간 존엄·권리' 보장 정책 추구
복지·교육·돌봄 통합팀 출범

순창군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기본사회팀'을 공식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 선도지역으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누구나 두터운 안전매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강조하며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이미 기본사회 실현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정책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1인당 월 10~20만 원'아동행복수당' △학기당 200만 원'대학생 생활지원금' △매월 15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하는'청년종자통장' △연간 200만 원'농민 기본소득' △연간 12만 원'어르신 이미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복지·주거를 연계한 지역활력타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기숙형 공립교육기관인 옥천인재숙 운영 등 돌봄·교육 분야에서도 균형 잡힌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교육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통학택시 등 교통약자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순창군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 군민 만족도 또한 높아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 모델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신설될 기본사회팀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복지·주거·교육·돌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국제드론제전 앞두고 전 부서 '원팀' 가동

시 준비 상황 공유·협업 논의
드론·로봇·지역특산 융합 축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을 앞두고 시 차원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요 국과장 및 전 부서장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책임의식을 나눴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며, 드론과 로봇을 융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드론제전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DFL(Drone Formula League 국토부 개발 국산 드론기체 활용 국제적 수준 드론 레이싱 경기 플랫폼) 드론 레이싱을 중심으로 국내외 드론스포츠 대회, 로봇 테마 전시·체험, 산업전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문화예술과 지역특산물도 함께 어우러져 남원만의 색깔을 담은 복합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국제드론제전은 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어린이집,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순창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순창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내 학교, 산업체 등 총 32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시설 환경 △개인위생 △조리과정의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30여 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며,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준이 적용됐다.

우수 급식소로 선정된 순창어린이집의 김민영 원장은 "언제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WHO·국제보건전문가, 완주 로컬푸드 방문

로컬푸드 생산·유통 현장 시찰
기후·식품안전 대응 모델 주목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외 보건·영양 전문가들이 완주군을 주목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영양 전문가들이 지역 로컬푸드 정책과 기반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Dr. Francesco Branca (전 WHO 영양·식품안전국장, 현 제네바대학교 교수) △ Claudia Fernandez de Cordoba Farini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컨설턴트) △ 윤지현 교수(서울대학교) △ 강윤희 교수(서울대학교) 등 식품, 기후, 공중보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4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과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 등 로컬푸드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과정까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완주군의 과학영농 기반시설,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증체계, 농산물 가공 시스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외 보건·영양 전문가들이 지난달 30일 완주의 로컬푸드 정책과 기반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군을 방문했다. <사진=완주군>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등과 관련한 글로벌 대응에 있어서 로컬푸드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군청에서 진행된 유희태 완주군수와의 티타임 자리에서는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과 주민 참여형 식품 체계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이어지며 국제적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다.

방문단은 "완주군의 로컬푸드 모델은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품안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실천 사례"라며, "향후 국제적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방문은 완주 로컬푸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지원 이어 안전교육까지

'전국 최초' 노약자 전동기 지원
읍면 순회 실례 중심 교육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한 순창군이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활동까지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순창읍 노인회관 3층 교육장에서 전동보조기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 37명을 시작으로, 총 33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까지 6주 동안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해 하반기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전원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각 읍면을 돌며 실시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본 조작법부터 사고 예방 요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 교육에 최영일 순창군수가 직접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이목을 끌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드론교실'
시범 종료 후 본격 확대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들의 드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드론과 가까워질 수 있는 '2025년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남원시는, 올해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내 전문 교육업체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에 나선다. 또한 2025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대상과 회차로 교육이 확대된다.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15개소, 3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남원시노인복지회관과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중·장년층 5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 이론 및 항공촬영 체험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수지초, 금지초, 용성초, 월락초, 교룡초, 원천초, 서원초, 왕치초, 도통초 등 9개 초등학교 266명의 학생들이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드론코딩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드론의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기본반 △심화반 △중·장년층 특화반 △영상촬영 특화반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 '5대 전략' 비전 선포

200여명 참여 선포식 개최
기업 육성 지역특화 전략 제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30일 스위트호텔 남원 그랜드볼룸에서 남원시의회,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유관기관, 전국 바이오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축하공연, 남원시 바이오산업 추진계획 발표, 비전선포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신성장동력 지역특화 바이오산업육성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이라는 비전과 천연물·곤충 중심의 허브 남원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이오소재 개발 △바이오소재 가공연구 △영호남 유일 바이오 인증평가 △바이오기업 육성 유치 활성화 △바이오기업 네트워킹의 5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남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 사업들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을 알리고 향후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산업을 남원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 앞에서 알리는 자리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R&D 연구기반강화, 첨단 인프라구축, 혁신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화사회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향토예술회관, 하반기 5개 공연 지원 선정

지역 예술단 공연장·비용 제공

완주문화재단 산하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하 문예회관)이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지원사업으로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예회관은 역량 있는 지역 공연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5개 작품은 공연비와 공연장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은 지난달 27일 막을 내린 '극단 푸른숲'의 연극 〈우당탕탕 멧돼지를 잡아라!〉였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두 번째 선정작 '극단 창작극회'의 뮤지컬 〈야, 춘기야!〉가 무대에 오른다.

오는 8월 29일에는 '앙상블 소리담다'의 지브리&디즈니 콘서트가, 9월 19일에는 '아크기타앙상블'의 스토리텔링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는 '청연'의 LED 기술 융합 전통예술 퍼포먼스 공연 〈빛나는 밤에 청연〉이 무대에 오른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노인대학 교육생·직원 대상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

임실군이 오는 7월 3일 노인대학 교육생 및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암 이야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암센터와 연계해 전북음식문화연구회 이사 박영민 강사를 초빙해'암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관리'라는 주제로 암의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요인을 알아보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조리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암의 원인 중에는 환경인자가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환경인자 중에서도 식생활이 암 발생의 약 35%나 관여하므로 올바른 식생활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정제가 덜된 곡류와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리고 가공된 육류의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강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 교육과 검진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업 현장 점검·교육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 주력

무주군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무주군은 오는 9월까지 사업장 자체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예방수칙(물, 바람, 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조치)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상황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보건의료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기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마을 단위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과 챙이 넓은 모자 사용, 20~30분 간격의 규칙적인 휴식,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 준수를 독려하며 폭염기 작업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도 크다"라며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 현장은 물론, 농업 현장 곳곳이 폭염기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확산과 실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논개 판소리경연대회 성황 박세미 씨 '명창부 대상' 영예

장수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6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과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됐고명창부, 일반부, 일반논개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로 8개 부문에 총 37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결과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박세미(대구 중구)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신윤주(서울특별시) △일반논개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장무영(서울특별시) △신인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이영순 외 10명(광주광역시 북구)이 차지했다.

또한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이소원(경기도 안양) △중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김주은(전남 함평) △초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노유정(부산광역시) △초등 논개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박수진(전북 장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를 통해 전국의 명창들이 모여 기량을 뽐내고 의암 주논개의 숭고한 애국 충절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발전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하고 판소리 정신을 널리 확대할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군정 주요 성과·비전 제시

민선8기 3주년 맞아 "자연이 새로운 기회" 생태건강치유도시 본격화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춘성 군수는 "지난 3년은 군민과 함께 진안의 내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온 시간이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 자산을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며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군민 대다수가 용담호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반영시키고, 경제성 부족으로 제외됐던 구간도 도비 126억 원을 확보해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36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월랑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스포츠 특화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대회 및 아웃도어 행사를 지속 유치했으며 60년만에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진안군은 생태·관광·균형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군정 목표로 설정한 '생태건강치유도시'의 본격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용담호 인근에 추진 중인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용담호를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환원하고, 주민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백운면 신광재 일원에는 총사업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사업'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오는 하반기 개원을 앞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산림치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도 눈에 띈다.

특히, '보룡재 도로 개선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은 오랜 시간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왔지만, 이제는 개발 제약을 넘어 자연이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2026~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꿈키움바우처 부대비용 사용 제한 해제

음식점·카페 등 자유 사용 실효성 대폭 개선

장수군은 청소년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의 부대비용 사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오늘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청소년꿈키움바우처'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실생활 밀접 업종에서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의 문화·여가·자기계발 활동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수군은 바우처 가맹점 추가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방문의 해, 붕어섬 관광객 '역대 최대'

넉 달 만 25만여명 방문 입장료 182% 신장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재개장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간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생태공원에 유료 입장한 방문객 수는 총 248,3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7,564명을 넘은 수치이자, 2022년 10월 임시 개통 이후 2023년 같은 기간 175,243명을 크게 뛰어넘는 개통 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한 달간 무료 개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3월부터 유료 개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방문객은 더욱 증가, 전년도 총방문객 수인 46만여 명도 올해는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추이 속에 지난 5월 25일에는 단 하루 동안 9,300여 명이 찾아 개통 이후 단일 방문객으로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무료 개장 당시 입장객은 60,156명이었다. 올해는 그 이상의 방문객이 유료 입장하면서 운영매출액이 급증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입장료 매출액은 7억 8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3천1백만원보다 182% 신장했다.

방문한 관광객들의 입소문과 아름다운 붕어섬 생태공원의 계절 꽃 경관과 어울려 찍은 사진들을 개인 SNS에 올리는 관광객들의 호응에 무려 상반기 동안 180만 뷰를 자랑하는 군청 뉴미디어팀의 적극적인 SNS 관광 홍보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재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호수인 옥정호에 자리한 붕어섬에서 힐링 관광을 실컷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월남전참전자회 삼도 호국안보결의대회' 성료

삼도 참전용사 한자리에 국가안보 의지 다져

'제19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三道)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지난달 30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주락창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무주군지회장은 "이 자리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인팔 전우(무주군지회), 박구부 전우(영동군지회), 김현조 전우(김천시지회)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삼도 화합과 발전, 나아가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삼도 호국안보결의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매년 삼도(무주, 김천, 영동) 시군에서 윤번제로 개최되며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용맹함과 기개를 드높이고 전사한 동료들의 넋을 기리며 회원 간 우애를 다지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준비 돌입

8월 1~3일 개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장수군 대표 여름 계곡 축제인 '제3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추진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번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여름 계곡 축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물과 공연이 어우러진 '쿨밸리 밸리밤', '맨손 송어잡이' 확대, '쿨밸리 워터파크' 운영 등 무더위를 날려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열려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전망이다.

또한 장수군은 이번 축제에서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관내 주민이 체험과 판매 부스를 100% 운영하는 '상생형 축제'로 전환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물놀이와 공연,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여름 계곡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기재부 찾아 현안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전 군수는 임대한 안전예산과장을 만나 '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140억 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제방 월류로 인한 인근 마을과 농경지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농업 생산 기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전 군수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지역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9월 초까지 진행되는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 끝까지 대응해 우리 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

임실군이 건강하고 우량한 숲 조성을 위해 올해 총 669헥타르(ha)에 걸쳐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11억4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조림목의 안정적인 생장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어린 조림목이 햇빛과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잡관목, 잡초, 덩굴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생육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재해 예방, 생물다양성 유지 등 산림의 다기능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목재 자원 확보,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자원 조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미래의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임실군의 산림 자원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원평지 들소리·농요 시연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에서 들소리 및 농요를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2024년도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진안 원평지 들소리 및 농요 가치 발굴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원평지 들소리 보존회에서 시연을 맡아 진행했다.

원평지 마을에서 전승돼 온 들소리 및 농요 8종을 마을 풍물패의 기굿을 시작으로 모심는 소리인 '상사소리'를 비롯해 논매기 과정에서 불리는 '양산도','방개타령','산타령','매화타령','에위싸호','뚜름마헤', 마을로 돌아오며 부르는 '섬마타령/사랑가' 등이 시간대별·작업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은 "원평지 마을의 들소리 및 농요는 산과 평야지역의 접경지역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논일과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돼 온 무형유산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정읍 신태인라이온스클럽, 창립 50주년 맞아 장학금 기탁

창립 50주년을 맞은 정읍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이임회장 이훈, 신임회장 노영률)은 지난달 29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클럽 회원 35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창립 반세기의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최호성 씨

심청가 열창·대통령상 수상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최호성 씨(38세)가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부분' 대목을 열창한 최호성 씨가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본선대회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장원인 최호성 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판소리명창부 장원 최호성씨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항상 다듬질해가며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주대사습놀이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을 넓히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서울 노원구 호남향우회, 고창 방문 장학금 기탁·농특산물 구매

서울 노원구 호남향우연합회(연합회장 최용갑)는 지난달 28일 고창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선운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고향방문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국회의원(환경부 장관 지명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800명이 함께해 지역 간 우정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이번 방문행사에서 노원구 호남향우회는 고창군 인재육성을 위한 뜻을 모아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고향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블루베리, 땅콩, 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소비활동도 이어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청 이한빛 선수, 레슬링 국가대표 최종 선발

"좋은 성적 거두겠다" 각오

완주군청 레슬링팀 이한빛 선수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완주군청 레슬링팀이 최근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2025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와 '제50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맹활약했다.

레슬링팀 선수 4명이 두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고, 이한빛 선수는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5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는 이한빛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이지선 선수 은메달, 오정빈 선수 동메달로 금·은·동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이한빛 선수는 "이번 선발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환기 레슬링팀 감독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부귀면지사협, 저소득층에게 한우 사골곰탕 전달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준)는 지난달 27일 관내 저소득층 30가구에게 식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고령화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가구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일반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하여 지원했다. 식품 종류는 한우사골곰탕과 떡국떡이다. 식품을 판매한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 참예우 호성점는 일반 판매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여 지사협 사업에 협력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박석호 씨, 무주군에 방제복 4천 벌 기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주민 박석호 씨가 지난달 30일, 일회용 방제복 4천 벌을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박석호 씨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을 줄여 농업인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방제복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다소 번거롭고 덥더라도 병해충 방제 때 꼭 착용하셔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박석호 씨가 기탁한 일회용 방제복을 지역 농가들이 농약 살포 작업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이다.

박석호 씨는 지난해에도 아침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화상영어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정읍초, 폐페트병 모아 업사이클링 양말 기부

환경 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정읍초 학생들의 작은 손길이 정읍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은 지난달 27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아동권리센터와 함께 'NH그린액션' 사업의 일환으로 나눔활동 전달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NH농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ESG 실천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정읍초등학교는 사업 참여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폐페트병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업사이클링해 양말로 제작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양말은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돼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아동에게 전달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수송동, '청소의 날' 맞이 환경 정화 활동 진행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자율참여 청소의 날'을 맞아 환경정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 정화 활동에는 통장단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송동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무단투기 된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폐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가정에 선풍기 전달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은 30일, 무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한 지원 사업인 '쿨(Cool)~잠을 드려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복지 직원과 통장 등은 준비된 선풍기 30대와 여름 이불 30세트를 가지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전달하는 한편, 어르신과 1인 가구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며 안부를 확인했다.

특히 폭염을 맞았을 때 행동 요령과 건강 관리 수칙을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군산=지송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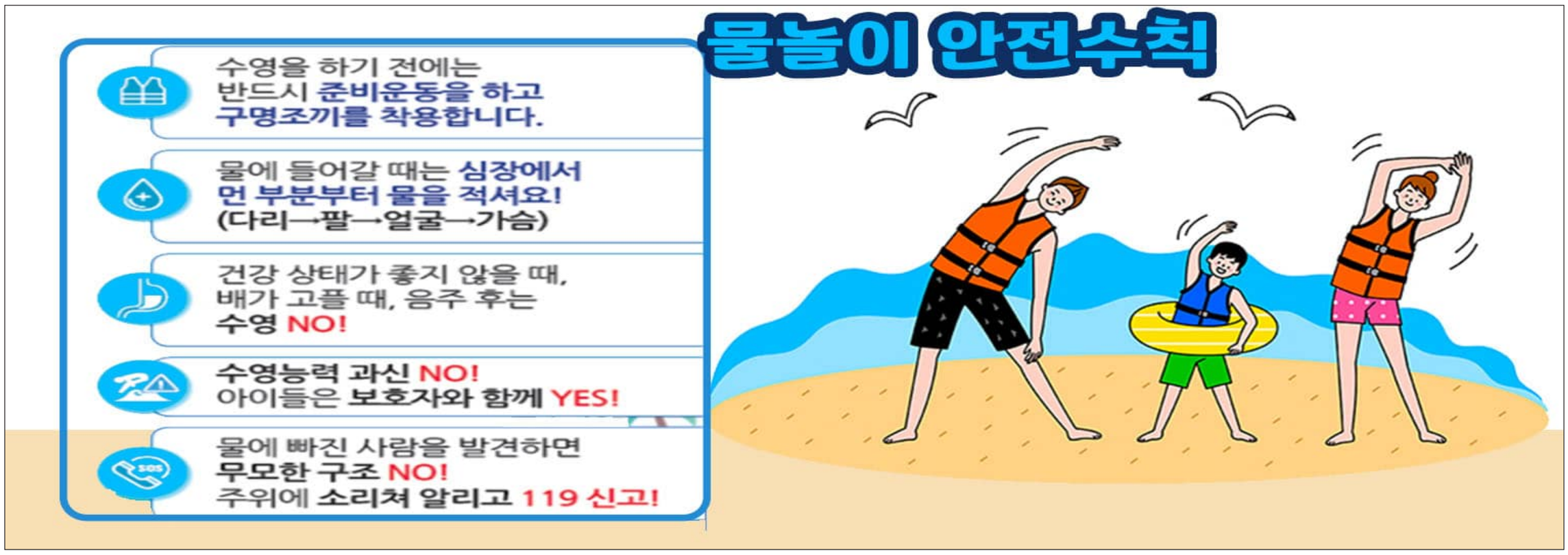
[인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승진 및 전보 (2025.6.30. 기준)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관리자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一事一言〉

이재명 정부 인사 우려스럽다

김관춘
논설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적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산하(再造山河)'라는 기치를 들었지만, 정작 그 깃발을 실천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정권 초기에 내건 구호와는 달리, 인사의 풍경은 감동이 없다. 철학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실종되었으며, 대개혁의 에너지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인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의 정신을 투사하는 창이고, 국정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얼굴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단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이 인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진실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인사를 들여다보면, 시대적 전환의 지향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관행에 안주한 코드인사, 출신과 라인 중심의 권력 안배,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구태가 여전히 반복된다. 친윤 색채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당연시되는 현실은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통제해 온 한국 사회의 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기술자보다, 철학자와 인문학자가 공직의 앞자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 운영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해석하고 인간의 삶을 재조직하는 가치적 판단이며, 사유의 결과다. 사회 대개혁은 단지 제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존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핵심 주체인 사람이 인사에서 배제된다면, 어떤 개혁도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던 과거의 민주정부조차 인사의 함의에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끝내 좌초했던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방향 수립의 기점에서 '사람 중심 철학'을 인사의 본령으로 삼아야 한다. 정권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다. 방향 없는 정책은 표류하고, 방향 없는 인사는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국정 전반은 표류하게 된다.

그렇다면 방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철학에서 시작된다. 철학 없는 정치는 단기적 처방과 인기 영합에 매몰되기 쉽고, 철학 없는 인사는 전시적 인재 등용에 불과하다. 진짜 방향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인문학과 예술, 문학의 영역이며, 이들이 국가 운영의 전면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다.

문학은 시대를 해석하고, 예술은 감수성을 수용하며, 철학은 사회의 영혼을 결정짓는다. 이들은 현실 정치와 다소 거리를 두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교한 사회 진단자이자, 시대정신을 선취하는 실천가들이다. 이런 이들이 정책 설계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또 한 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인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탄생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바로 군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시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같은 논리로, 민정, 인권, 교육, 복지, 문화, 인사 등 사회의 핵심 영역은 기술 관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 기획해야 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 구조를 설계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곧 정치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의 의무다. 정권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의 정당성이 아니라 삶의 정당성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이야말로 정권의 진짜 업적이다.

지금 우리는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이 절박하다고 해서 철학을 포기할 수는 없다. 급하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전환기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 구조를 바꾸려면 철학을 바꿔야 하고, 철학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철학 있는 인사'다.

이제 막 한 달여를 맞은 이재명 정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기성과에 눈이 멀지 말고, 체제 유지를 위한 기계적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조와 시스템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의 사유와 감수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 없는 국정은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결국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귀결된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사람을 위한 철학, 철학을 구현하는 인사, 인사가 설계한 정책, 정책이 만들어내는 삶에서 시작된다. 사회 대개혁과 재조산하의 진정한 출발점은 사람이며, 사람 중심의 사유다.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그 철학이 구체적 얼굴을 갖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국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국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없는 개혁은 없다.

사 설

전북방위산업, 민간 협력체계로 미래를 열자

전북자치도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전북 방위산업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간 중심의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협의회는 향후 기술 교류, 정보 공유, 공동 사업 등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한계에 부딪히던 전북 방산산업의 현실을 공동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나아가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며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그간 방위산업의 불모지로 평가받아 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방산 관련 주력 기업도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북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능성을 키워왔다. 전북국방벤처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화, 인증, 홍보 등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펼쳐왔다. 올해도 6개 기업과 신규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총 68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는 전북 방위산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전북 방위산업은 이제 더 이상 주변부 산업이 아니다. 역량과 의지를 가진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적 생태계 조성의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협의회 출범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술 교류와 공동 과제 발굴, 정보 공유와 공동 마케팅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는 여기에 발맞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방산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기업 간 매칭, 시제품 제작 지원, 국방부와의 연계 사업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전북 방산 생태계의 기반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첨단 기술의 내재화와 국방 수요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과 연구소, 벤처기업,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기적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이미 전주 탄소소재 산업, 군산 조선 기자재 기술, 익산 전자부품 산업 등 방산과 접목 가능한 기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제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사 장비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과 국방 ICT, 스마트 전력체계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북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 시점에서 출범한 협의회가 도민들의 응원 속에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전북 방위산업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 활짝 꽃을 피우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시

나 잘 있니 / 문정희

그해 겨울 네가 가지고 간
나 잘 있니?

처음 만나 하얗게
웃던 치아들
바람 속에 빛나던
벌거숭이 나무들

온몸으로 휘달리는
눈펄 속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니

깊은 계곡을 배회하는
산짐승 소리로
찾아 헤맸지만

무슨 새가 와서 쪼아먹어
빗살무늬토기처럼
상처만 무성한 나
어디까지 데리고 갔니

처음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옷도 걸치지 않아
늘 추운 나

네가 가진
나는 누구였니?
어느 의자에 앉아
건너 숲을 보고 있니?
깊은 눈망울 속에서
나 어떻게 사라져 가니?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문화재열전

신말주선생의 십로계첩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서간류, 간독류
-지정일 - 1992년 6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남산길 32-3
(귀래정신말주선생후손세거지)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민과 함께 일군 3년, 정읍의 담대한 변화 이끌다

민선8기 3주년 – 10대 성과 총결산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정읍시가 시민과 함께 이뤄낸 10대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지난 3년간의 담대한 변화를 조명했다. 정읍시는 '신뢰받는 행정'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며 교육, 농업,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단발적인 성과가 아닌,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정읍시의 지난 3년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그려온 혁신의 과정이었다. 그 눈부신 변화의 흐름을 3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 조명한다.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 2등급
1기업 1담당제 매칭…애로사항 해결
육아수당 인상·정읍사랑상품권 확대

신뢰와 혁신으로 쌓아 올린 행정, 재정 건전성으로 빛나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정읍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만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고,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낸 청렴 문화의 정착을 의미한다.

혁신을 향한 노력도 돋보였다. 정읍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안 되는 이유' 대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을 위한 혁신 행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와 혁신은 튼튼한 재정으로 이어졌다. 정읍시의 2025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1136억원 증액됐고, 국가예산 확보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1711억원이라는 견고한 재정 방파제를 쌓았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은 정읍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는 동시에,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약속이다.

기업 유치부터 서남권 상생까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다

정읍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기업 1담당제' 매칭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91%를 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읍이 동물의약품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정읍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더불어 올해 5월에는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선정돼 첨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은행 연수원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교육·연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정읍의 시야는 시의 경계를 넘어 전북 서남권 전체로 향하고 있다. 정읍·고창·부안을 아우르는 서남권 협력의 거점 도시로서, 정읍시는 공동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생활자원회수센터와 2024년 아동보호기관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 개소,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준비하며 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확충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동 운영 역시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아낌이 없었다. 지난해 총 180억원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172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은 정읍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동력이다. 여기에 전북 제1호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2025년), 45억원 규모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2022~2025년)까지 더해져, 정읍은 명실상부한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 모두의 삶을 보듬다,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포용 도시

정읍시는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총 214억)과 전 세대 20만원의 한파대응지원금(총 111억)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총 310억)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며,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의 모범 사례로 남았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시스템도 더욱 강화했다. 올해부터 육아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연 100만원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연 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의 청년희망지원금을 통해 사회 첫걸음을 응원한다.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시작한 지역 주치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며 정읍형 건강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 생활에 힘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는 노력도 계속됐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80억원 규모의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2023~2027)을 통해 구도심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385개 가맹점이 참여해 5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은 138개 소상공인의 판로를 열어주며 49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쉼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고 있다. 구절초 지방정원이 전북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2022년)된 것을 시작으로, 복합형 제험공간 '징읍 드림랜드'(2022~2025년), 전국 최초의 복합형 바닥분수 '정읍천 미로분수'(2024년), 도심 속 야간경관숲 '달빛사랑숲'(2024년), 내장산 자락의 '자연휴양림'(2025년)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2024년)까지 개관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총 113억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3개국에서 14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 최근에는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까지 개관했다. 더불어 99억원 규모의 '치유농업클러스터'와 58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정읍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정읍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으며 다 함께 잘사는 정읍, 머물고 싶은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